

# 크리스천 코칭을 통한 한국 교회의 질적 성장

박주현\*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크리스천 코칭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질적 성장 발판을 구축하고자 한다. 탁월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지위(position)가 아니라 역할(role)이다. 코칭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의 필수요소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신뢰받는 코치가 된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청소년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상처와 치유 분야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과 연결되어 교회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은 교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크리스천 코칭을 통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도들이 주도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치인 목회자가 들어주고 질문해 주는데, 주도적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목회자는 묻고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성도들은 만족감과 충만감을 느끼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둘째, 말씀의 진정한 내면화를 이룰 수 있다. 성도들의 정신적 창고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존재한다.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는 것과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일이다. 셋째, 목회자를 진정한 영적 문제의 전문가로 만들어 준다. 자신이 복잡한 현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비록 오류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가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넷째, 목회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성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성도 자신이다. 목회자의 넘겨짚기와 강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믿으라는 식의 일방적인 해답 제시는 변화보다는 마찰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주제어** : 코치, 코칭, 크리스천 코칭, 한국 교회, 목회자

---

\* 백석문화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I. 서론

오늘날 사회나 기업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립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조직에서 과거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지시형 리더십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형 리더십으로는 자립형 인재는커녕 의존형 인간만 양산할 뿐이다. 따라서 기업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및 리더십의 변화가 필연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것이 바로 코칭(coaching)이다.

코칭(Coaching)이라는 용어는 현대적 개념으로서 코치(coach)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따라서 코칭의 개념은 코치의 어원을 살펴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 코치라는 용어는 1500년대 헝가리 콕스(Kocs)라는 마을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곳에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coach)에서 유래한다. 이 마차가 전 유럽에 퍼져서 ‘여러 사람을 태워 현재 있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마차’라는 뜻으로 콕시(kocsi) 혹은 콕지(kotdzi)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지금도 영국에서는 택시를 코치(coach)라고 부른다. 이는 집체교육(training)의 어원인 기차(train)와 대비해 코칭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마차(coach)는 현재 승객이 있는 지점에서 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Door-to-Door 개별 서비스이지만, 기차(train)는 승객이 역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경로로 정해진 종착역까지 가는 집단 서비스로 비교된다(김혜경 외, 2015: 12).

1880년대에 이르러 코치는 케임브리지의 캠 강에서 대학생들에게 노 젓는 것을 지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그대로 자리를 잡아 코치는 선수들을 도와 성적 향상을 돕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됐으며, 초창기에는 코쳐(coach)라고 불렸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1880년대 전까지는 코치란 단어는 운동과 상관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코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포츠분야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집중해 기술을 향상시키고 장애 요소를 극복하여, 목표한 수준까지 도달하려는 경영, 학습, 음악, 미술은 물론 거의 모든 분야로까지 확대되었다.

현재처럼 코치라고 부르게 된 것은 1980년대 초에 재무설계사였던 토마스 레날드(Tomas Leonard)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도시의 신세대들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레날드는 그들을 도와주면서 코칭의 필요성을 체험하였다. 그들은 레날드를 통해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후 레날드는 그들로부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코치라고 부르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안을 받게 됨에 따라 오늘날과 같은 코칭과 코치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원이 무엇이든 이 단어는 고착되었고, 코치는 운동선수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단어는 음악가와 대중 연설가와 배우들과도 연관되어 사용되었는데, 그들은 코치에게 의지하여 기술을 향상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집중하여 목표한 수준에 도달하고자 한다.

코치가 하는 일은 선수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를 고무하는 일이다. 코치는 선수들을 코칭하여 자신감을 증대하고, 명확한 목표를 갖게 하며,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더 위대한 성취를 달성하게 한다. 약 30년 전에 기업계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코칭은 여전히 스포츠계와 연예계의 영역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급격한 변화의 충격, 빠른 기술의 진보,

정보의 홍수 속에 요동치며 밀려오는 파도에 직면하여 기업 리더들은 누구도 혼자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CEO가 세세한 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구식이다. 이제 더는 윗자리에서 일이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상명하달식(上命下達式)으로 경영할 수 없다.

리더십 재능과 관리 기술을 갖춘 숙련된 기업 임원들은 사람을 다루는 문제와 마주친다. 즉 의사소통과 관계 단절, 높은 이직률과 결근율, 낮은 생산성, 동기부여와 헌신도 같은 문제들이다. 크고 작은 기업에서 모든 직급 사람들이 지나치게 분주한 생활방식, 그리고 증가하는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변화에 직면하는 방법, 새로운 관리 방식을 발전시키는 방법,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방법,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 등을 배워야 했다. 직원들을 리더와 결정권자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훈련해야 했다. CEO나 다른 임원들은 누가 그들을 이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다. 운동선수와 공연 예술가들이 여러 해 동안 활용했던 코칭 원리들을 기업계에 적용하게 되었다. 개인 코칭은 헬스클럽을 넘어 회사 사무실과 작업장으로 진출했다.

현대 코칭 운동은 경영 분야에서 시작되어 초기에 성장을 이루었지만, 오늘날 코칭은 어디서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사람들은 영양 관리 코치, 운동 코치, 재정 코치, 대중 연설 코치 등에게 도움을 받는다. 또 인생과 경력 면에서 초점과 방향을 찾도록 돕는 라이프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 코치, 부모 역할 코치, 영적 여정을 위한 코치, 시간 관리 코치, 인생 과도기를 돕는 코치를 찾는다. 이런 코치들은 사람들이 인생의 도전을 헤쳐나가고 변화의 와중에 자신 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곁에서 안내해 준다.

1990년대 이래로 코칭 분야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1992년에 국제코치연맹(International Coach Federation: ICF)이 설립되었다. 국제코치연맹은 이제 “기업과 개인 코칭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오늘날 많은 코칭 조직들이 있다. 1990년대에는 훈련 프로그램이 아주 적었지만, 오늘날은 수백 개가 존재한다. 수많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코칭 과목과 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어떤 책에서는 이 모든 현상을 가리켜 “코칭 혁명”이라고 일컬었다. 이는 결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은 혁명이다(Collins, 2009, 양형주·이규창 역, 2011: 27).

이런 성장과 폭발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코칭이란 것이 존재하는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코칭은 여전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이다. 많은 학자가 다양하게 코칭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코칭의 핵심은 사람들을 구비시켜 현재 있는 곳에서 그들이 바라는 더 유능하고 성취감 있는 곳으로 가게 하는데 있다. 간략히 말해서 코칭은 개인이나 집단을 현재 있는 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술이자 행위이다.

코칭은 사람들이 자신의 비전을 확장하고, 자신감을 느끼고, 잠재력과 기술을 개발하고, 목표를 향해 실천적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이나 심리 치료보다 코칭은 덜 위협적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덜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코칭은 과거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코칭은 비교적 안정된 사람이 비전을 세우고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코칭은 수동적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코칭은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장에 관한 것이다. 코칭은 약점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기술과 힘

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으로 코칭은 치료자 관계보다 덜 형식적이며 대등한 두 사람 사이의 파트너십에 가깝다. 코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기술과 경험과 관점을 지닌 동역자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성장은 멈추었고, 청소년들은 점점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코칭 프로그램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과거 상처와 치유 분야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빠른 회복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과 연결되어 교회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크리스천 코칭 프로그램은 교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크리스천 코칭을 통하여 한국 교회의 질적 성장 발판을 구축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코칭과 상담, 컨설팅, 멘토링, 제자 훈련의 특성 비교

코칭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코칭을 유사 영역과 비교해보는 것이 한 방안이다. 코칭과 가장 유사한 개념은 상담이다. 전통적으로 상담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과거에서 그 해답을 찾고 치유하려 하는 데 있지만, 코칭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변화의 동기가 유발된 건강한 사람들을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컨설팅은 컨설턴트가 주도하여 현상을 관찰하고 종합하여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코칭은 조직을 구성하는 조직원 개개인, 즉 코칭을 받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책을 발견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멘토링이 기술과 정보와 시각을 학습자에게 나누어주어 멘티(mentee)로 하여금 멘토(mentor)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다면, 코칭은 코칭을 받는 사람이 코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독특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둔다.

크리스천 코칭을 하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천 코칭이 개인적·실천적 제자 양육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코칭이 제자 훈련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일련의 기술과 방법을 대표한다고 해도, 코칭 기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를 양성하는 목표에 초점 맞추는 것보다 더 넓게 사용된다(Collins, 2009, 양형주·이규창 역, 2011: 30-31).

#### 1) 코칭과 상담이 다른 점

상담가는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 내적 혼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따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도록 돕는다. 어떤 사람은 슬픔, 죄책감, 불안정, 패배 의식, 분노 조절 장애, 중독, 성적 고민 등과 같은 문제로 상담을 받는다. 이런 문제는 인생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었고 결핍되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신건강 상담가들과 연구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한 주제이기도 하다. 또한, 목회 상담가들의 사역과 집필의 주요 주제이기도 하다. 이 모든 주제는 이른바 부정심리학과 연관된다.

대개 상담의 목적은 고객을 부정적인 경험과 어려움에서 끌어내어 그에 제대로 대처하고, 더욱 긍정적으로 문제에 휘둘리지 않는 온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상담가는 부정심리학의 주제를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돕도록 훈련받는다. 그리스도인 상담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문제의 원인을 다루고, 증상에서 벗어나게 하며, 내적 평안을 찾고 정신적·영적 치유를 경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상담은 부정심리학을 다루고 사람들을 도와 문제 영역에서 안정 지점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코칭은 긍정심리학을 다루고 사람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성취감을 맛보도록 돕는다. 긍정심리학은 기존의 코칭 현장에 익숙한 내용으로, 고객의 강점을 보강하고 실패보다 성공한 경험에 주목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코치의 전형적인 역할을 새롭게 지칭하는 말이다. 긍정심리학은 코치가 해오던 일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할 뿐 아니라 그것이 왜, 누구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다(Biswas-Diener, & Dean, 2007, 서희연 역, 2009: 248-260).

상담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종종 과거를 다룬다. 코칭은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람들이 미래에 가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게 한다.

상담	구분	코칭
부정심리학	학문적 기반	긍정심리학
잘못된 것을 고침	궁극적 목적	목표에 도달하도록 구비시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갈등, 불안, 우울증, 분노, 영적 싸움 등과 같은 감정의 문제를 다룸	내용 및 초점	성취, 성과 향상, 팀 세우기, 비전 설정, 직업적 성장 등 목표와 꿈에 도달하는 데 초점을 둠
과거에 일어난 문제의 원인의 치유와 안정을 주는 데 초점을 둠	시제	현재와 미래, 가능성, 목표에 도달하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꿈을 현실로 바꾸는 것 등에 초점을 둠
상담가는 환자를 다루고, 치유와 처방을 제공하는 전문가	관계	코치와 고객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작업하며, 서로 평등
상담가는 심리학, 정신병리학, 치료요법 등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함	지식	코칭은 경청, 질문, 격려 등과 같은 코칭 기술을 훈련받는 것으로 가능

<표 1> 상담과 코칭의 차이점

## 2) 코칭과 컨설팅이 다른 점

코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컨설팅과 유사하다. 컨설팅은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컨설턴트)이 상담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컨설턴트들은 상황을 분석하고 전문적인 안내와 조언을 해주고 보수를 받는다.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 보자. 확장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한 교회에서 유급 컨설턴트를 고용했다고 가정하자. 컨설턴트는 교회 리더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교인들에게 상세한 설문지를 돌리고 공동체를 주의 깊게 관찰한 다음 상황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를 제안할 것이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전문가

가 필요하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몸 상태와 치료법에 대해 컨설팅을 받는다. 비즈니스에서 컨설턴트는 현존하는 다양한 문제와 관행을 분석하고, 더 나은 마케팅과 사업 전략을 제안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미래 청사진을 개발하는 것을 돕는다. 이처럼 컨설턴트는 분석하고 제안하는 전문가이다.

코칭은 개인 또는 집단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자극한다. 코칭은 진단과 충고를 하지 않는다. 코치는 코칭하는 분야에 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대신 코치는 경청하고, 이해하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고, 들은 것을 요약하고, 코칭 받는 이들이 자신의 상황을 둘러보고 무엇을 할지 결론 내리고 행동하려 할 때 가능한 한 비지시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이런 과정에서 코치는 격려하는 사람이자 치어리더이며 도전하는 사람이고 책임감 있는 파트너지만, 결코 전문적인 충고나 지시를 내리는 사람은 아니다.

### 3) 코칭과 멘토링이 다른 점

멘토링이란 개념은 그리스 신화에서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 떠나면서 자신이 없는 동안 아들 테리마커스를 보호해 주도록 부탁했던 지혜로운 노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한다. 오늘날 조직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멘토(mentor)라 한다. 즉, 멘토란 조직에서 후진들에게 조언과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을 멘티(mentee) 또는 프로티제(protégé)라고 한다. 우리말로 멘토와 관련 있는 단어로 선생님, 선배님, 후원자, 호칭으로서 형님이나 언니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멘토링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인기는 비즈니스계에서 자리 잡고 성공한 리더들이 후배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안내해 주면서 시작되었다. 멘토링은 여전히 많은 일터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점차 그 인기가 시들고 있다. 왜냐하면, 변화 관리와 전략적 계획 수립에 의존하고 집중하는 조직에서는 멘토링을 할 시간이 없다. 조직은 성과에 대해 보상하지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들인 것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코칭은 분명 직업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초점이 더 넓다. 멘토가 직업이나 영적인 문제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전문 지식을 나눈다면, 코치는 고객(코칭 받는 사람)의 관심 영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특정 정보를 동원하지 않는다. 코치는 코칭 받는 사람 곁에서 미래의 방향을 그리도록 돕고, 목표 설정을 안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코치는 충고나 구체적인 제안을 피한다. 오히려 예리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격려하고 도전한다. 또한, 인생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확신을 하고 지속해서 정진하여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 한다.

한편, 멘토링은 꾸준히 그 영역을 확장한 결과 이제 코칭과 유사해졌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은 멘토가 전문가로서 활동한다면, 코치는 고객이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한다는 것이다.

### 4) 코칭과 제자 훈련이 다른 점

제자 훈련은 멘토링이나 코칭보다 초점이 더 좁다. 제자 훈련은 새신자나 성숙이 필요한 신자에게 성경의 진리와 영적 지침을 가르치는 데 집중한다. 제자 훈련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일련의 학습 과정이 제한된 시간 안에 맞추어져 있고 교사-학생 유형의 관계를 이룬다.

코칭은 제자 훈련과는 달리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물론 영적 성장을 돕는 것이 코칭의 일부일 수는 있다. 코칭은 직업에서 자기 발전,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것, 회사와 개인의 목

표를 발전시키고 달성하는 것, 갈등을 다루는 것, 인생의 과도기를 헤쳐나가는 것, 비전을 명료하게 하는 것, 좋은 관계를 가꾸어 나가는 것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것들은 제자 훈련의 주요 목표가 아니다.

## 2. 크리스천 코칭

코칭은 개인 또는 집단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코치 받는 사람(고객)이 원하는 지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기술이자 실천이다. 크리스천 코치는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꿈꾸도록 돕는다. 코치는 사람들이 직장, 가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서 더 나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한다. 다른 모든 코치와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코치는 사람들을 도와 그들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가고 싶어 하는 지점에 이르도록 돕는다.

크리스천 코치는 더욱 원대하고 고상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진다. 크리스천 코칭은 개인 또는 집단을 도와 그들이 현재 있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힘을 북돋워 준다. 사람의 목표, 꿈, 열망과 재능 등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크리스천 코치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찾고, 자기 일만 쫓아다니던 데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으로 옮겨 가게 한다.

크리스천 코치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을 보게 할까? 코치는 생각을 자극하는 강력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고객을 도와 우리가 사는 시대를 형성하는 세력들에 민감해지도록 돕는다. 코칭은 하나님이 공동체, 교회, 개인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인식시킨다. 코칭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기회를 알아차릴 수 있다. 크리스천 코치는 기독교적 가치와 신념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크리스천 코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을 도와 소명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표에 도달하는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한다.

크리스천 코치가 갖추어야 할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크리스천 코치는 코칭 관계를 맺으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사용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는 죄로 타락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았다.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우리는 이 구원의 선물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 현세의 풍성한 삶과 사후에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크리스천 코치는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코치의 존재 중심에 계시고, 모든 코칭 과정의 안내자가 되심을 인식한다.

둘째, 크리스천 코치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어 하는 인격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은 결혼 생활, 부모 역할, 생활방식, 가치관, 소명, 코칭하는 관점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천 코칭은 코치가 성령님께 고객(성도)과의 관계를 인도하시도록 내어 드릴 때 주시는 능력과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크리스천 코치는 누구도 중립적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객(성도)을 격려하여 스스로 할 일을 설정하고 자신의 결론에 도달하게 하며, 자신에게 맞는 실천 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코치는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코치도 완벽하게 중립적일 수는 없다. 코치가 자

신의 가치와 관점을 철저히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코치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내면에서 환호하고 멀어질 때면 실망한다.

넷째, 크리스천 코치는 고객(성도)을 위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인 주제를 토론하는 것을 어색해 하지 않아야 한다. 코치가 고객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고, 고객(성도)이 자신의 삶을 비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해도, 크리스천 코치의 삶에 스며든 기독교적 가치는 코칭으로 흘러나온다.

### 3. 코칭 스킬

코치는 고객(성도)의 발전과 변화를 위한 존재이며, 고객(성도)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파트너의 역할을 한다. 코칭 스킬은 코칭 세션 중에 코치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듣고 말할 것인가 하는 기법에 관한 문제이다.

#### 1) 적극적 경청 스킬

적극적 경청은 고객(성도)이 표현한 것 이상의 의도, 감정, 정황까지도 듣는 것으로 고객(성도)의 마음을 여는 스킬이다.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할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코치는 자기 생각, 느낌, 감정 등에 대한 관심을 최소화하고, 고객(성도)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코치가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음을 고객이 느낄 때, 고객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마음을 열 수 있다.

#### 2) 질문 스킬

질문은 고객(성도)으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고객의 생각을 여는 스킬이다. 흔히 질문은 코칭 스킬의 꽃이라고 한다. 코치는 좋은 질문과 강력한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한다. 좋은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의 해답은 상황에 부닥친 당사자에게 있다는 코칭 철학에 기초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강력한 질문은 열린 질문, '어떻게' 질문, 미래지향적 질문, 직접적 질문 등이 있다.

#### 3) 피드백 스킬

피드백은 고객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구체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고객(성도)의 행동을 여는 스킬이다. 피드백 스킬은 고객의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해줌으로써 고객(성도)에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긍정적 피드백은 고객의 자신감을 강화해주는 칭찬과 인정이며, 발전적 피드백은 고객(성도)에게 있어 발전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그가 실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 4. 성경에서의 크리스천 코칭 이해



## 1) 구약성경에서 찾아보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기질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다. 그러나 우리는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 영이 막혀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예레미아서 3:33).”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예수님과 그분의 몸 된 교회를 경험하도록 하신다. 그 좋은 시간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발달할 수 있게 해 준다. 만일 우리가 감추고 뒤로 숨으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 되고 만다.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의 발달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열어 보이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리 삶의 잃어버린 부분은 발생 순서대로 저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바로 그 나이로 되돌릴 수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가 받지 못했던 양육, 학창 시절 놓쳤던 멘토링, 십대 시절에 꼭 필요했던 우정을 현재의 인간관계를 통해 채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들을 돕는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머무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사람들을 풀어 내셔서,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서 산다(시편 68:5-6).”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능력은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이 기초가 단단할 때 우리는 더 활기차고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고립되었다는 것은 서서히 죽어 가고 있다는 말과 같다.

최근 심장의학 분야에서는 한 사람의 정서적 유대감의 상태가 그 사람이 심장 질환을 앓게 될지, 그렇지 않을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발표했다. 환자가 나쁜 생각을 할 때 혈액의 화학성분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의사들은 이제 심장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훈련을 거친다고 한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잠언 4:23).”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도나,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잠언 14:30).”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잠언 15:13).”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잠언 15:15).”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잠언 17:22).”

“사람이 정신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지만, 그 정신이 꺾인다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잠언 18:14).”

## 2) 신약성경에서 찾아보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중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중심에 코칭이 있다는 점은 논의해 볼 만하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원하고 더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법을 보여주기 위해 오셨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유대 관계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단지 유대 관계만을 개발할 위험이 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리고 서로 간의 애정이 어린 유대 관계를 위하여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요한1서 4:12).”

“남편이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베드로전서 3:7).”

예수님은 자기 재산을 팔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머뭇거리던 한 젊은 부자 관원과 대화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믿음을 감추지 않으셨으나, 그 청년이 변화할 것을 강요하지도 않으셨다. 그 청년은 최선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삶을 세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으로 어렵다(마가복음 10:17-23).’”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려는 어떤 율법교사에게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도록 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이웃사랑은 이웃을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율법교사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였다. 오늘 청중의 세계에서도 그들의 고정관념 속에 담긴 기피 인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생각의 틀을 바꾸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는 피해 갈 수 없는 도전을 던지고 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다음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누가복음 10:30-37).'"

### Ⅲ. 교회에 크리스천 코칭 도입

교회에 코칭을 도입하는 것은 동떨어진 문화에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술집에서 20대 풋내기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과 비슷하다(Collins, 2009, 양형주·이규창 역, 2011: 361). 분명히 세계관과 가치관, 도덕적 기준에 주요한 문화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통적 교회들은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회중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지 의아해 하면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런 환경에서 대형 교회들이 등장했고, 많은 교회가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종교는 점점 인기를 잃고 있다.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성도를 포함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영성에도 관심이 있지만, 종교나 교회는 싫어하는 이들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을 때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

더욱 새로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성경적·신학적 정통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수는 매체가 만들어진 포스트모던한 사회와 연결되어 일하고, 바울이 고대 그리스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가치를 포용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왔다. 슬프게도 이 집단의 다수는 그들의 뿌리에서 벗어나 바깥사람들에게는 도저히 기독교적으로 보이지 않은 믿음과 행동에 빠지고 말았다(Collins, 2009, 양형주·이규창 역, 2011: 359-364).

아래의 <표 2>는 목회 상황에 코칭을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을 보여 준다.

적용 범위	적용 범위
목사 코칭	교회 성도들의 코칭 훈련
개인 리더 또는 교회 성도 코칭	변화 과정의 회중 대상 코칭
소그룹과 소그룹 리더 코칭	목사 교체기의 회중 대상 코칭
교회위원회 코칭	구체적 문제에 대한 코칭
교회 외곽 지역 코칭	코칭과 비전 만들기

기독교 관련 조직 코칭	코칭과 전략 기획
리더십 개발 코칭	코칭과 교회 갈등
코칭과 사명	코칭과 영적 지도

**<표 2> 목회 상황에 적용 가능한 코칭**

자료: Collins, G. R. (2009), Christian Coaching(2nd ed.), 양형주·이규창 역 (2011), 케리 콜린스의 코칭 바  
이블, p. 362.

#### IV. 결론 및 제언

탁월한 지도자의 영향력은 지위(position)가 아니라 역할(role)이다. 코칭은 훌륭한 지도자를 만드는 과정의 필수요소로서, 변화하는 시대에 신뢰받는 코치가 된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탁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서게 될 것이다. 사역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은 탁월한 코치로서 제자들 하나하나를 약간씩 다르게 코치하신 훌륭한 코칭의 모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변화된다. 코칭은 바로 이 변화의 관계를 가장 크고도 오래 지속하게 해 주는 것이다. 언젠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크리스천 코칭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되고, 가치 있는 사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효과적인 리더십이 코칭이며, 가장 효과적인 크리스천 지도자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효과적인 크리스천 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머지않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언젠가는 교회 공동체 안에 크리스천 코칭 사역이 보편화될 것이다(Collins, 2001, 정동섭 역, 2004: 382-386).

특히 크리스천 코칭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뿌리를 둔 신학으로서, 사람들 안에 있는 창조성과 탁월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코치인 목회자는 성도들이 자신의 고유한 시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도와주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조언하기보다는 자신이 코칭하고 있는 대상인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고 믿고 강력한 질문을 해야 한다.

과거의 리더는 지시하는 사람이었지만, 미래의 리더는 분명히 질문하는 사람이다. 이제는 성도들에게 동기부여와 격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코칭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질문과 경청은 성도들을 스스로 생각하게 하며 성도들의 의욕을 고취해 무한한 가능성을 끌어내게 된다. 가르침과 훈련을 통한 변화의 한계를 경험했다면, 코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변화를 수용하는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성경의 핵심을 간직한 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도 적합한 지상명령의 수행을 감당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천 코칭을 통해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도들이 주도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코치인 목회자가 들어주고 질문해 주는데, 주도적이 되지 않을 사람이 없다. 게다가 자신에 관해서, 자기를 위해, 자기가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묻고 들어주기만 했는데도 성도들은 만족감과 충만감을 느끼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다.

둘째, 말씀의 진전한 내면화를 이룰 수 있다. 성도들의 정신적 창고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존재한다. 성도들에게 부족한 것은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아는 것과 그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일이다. 크리스천 코칭 대화는 하나님 말씀의 맞춤형 적용이다. 구슬 더미 상태로 존재하는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배로 깨어지게 하는 것이다.

셋째, 목회자를 진정한 영적 문제의 전문가로 만들어 준다. 자신이 복잡한 현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비록 오류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핵심적인 가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생각하게 해줌으로써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넷째, 목회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성도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성도 자신이다. 목회자의 넘겨짚기와 강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믿으라는 식의 일방적인 해답 제시는 변화보다는 마찰과 갈등을 키울 수도 있다. 오히려 효과적인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대답에 귀를 기울임으로 권위의 손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혜경 · 김호성 · 박은경 · 서동원 · 전이수 · 주우환 · 최재용 (2015). 『The 코칭』. 서울: 라온북.
- 대한성서공회 (2007). 『성경전서(새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서우경 (2009). “크리스천 코칭과 상담의 비교 및 통합적 적용에 대한 효과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33-60.
- Biswas-Diener, R., & Dean, B. (2007). *Positive Psychology Coaching*. 서희연 역(2009). 『긍정심리학 코칭』. 서울: 아시아코치센터.
- Collins, G. R. (2001). *Christian Coaching*. 정동섭 역 (2004). 『크리스천 코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Collins, G. R. (2009). *Christian Coaching*(2nd ed.). 양형주 · 이규창 역 (2011). 『게리 콜린스의 코칭 바이블』.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Abstract**

#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Church in Korea through Christian coaching**

Joo-Hyun Park (Baekseok Cultur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churches through the Christian coaching seeks to build a foothold. The influence of the leader position and not the role. Coaching is the process of creating the great leaders of the required change, if you're in an age where trusted coach to deal with outstanding pastoral care to role is going to be a great leader. The growth of the Church and the current Korea, young people increasingly have to stay away from the Church. At this point Christian campus self growth and development coaching program is the urgent situa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healing past wounds and counseling for those who need quick recovery as well as the future vision and growth of the Church is connected to a lot of Christian coaching program can help you is absolutely necessary in the area of the bridge. Christian coaching will benefit you can get from the Church through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saints will take the initiative and become actively involved. Coach pastors give the question, not the man responsible. Just listen to the pastor asking if you feel a sense of satisfaction and fullness, the Saints back into the home. Secondly, to say that my progress of cotton. In the midst of a mental warehouse of the Saints is already filled with the word of God exists. The lack of the Saints is the word itself, but rather to say that knowing how to relate to themselves and sort their lives by the word. Third, as the true spiritual problems pastoral expert. As for the answers to all the trouble of their own complex is also in the process of making, even if an error occurs, the value is a long, but I think a key question about the issue to providing a true guru can be. Fourth, reduce Ministerial errors. The most well know the situation of the Saints the Saints themselves. Pastors can pray, and forced to hand over the straw roof tiles and believe in the word that presented a unilateral solution of change rather than friction and conflict might bring up.

**Key Words:** Coach, Coaching, Christian coaching, Church in Korean, Pastor